



쉐보레 볼트 EV는 383km의 국내 최장 1회 충전 주행거리와 합리적 가격으로 일상의 전기차 시대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첨단 IT 기술이 적용됐고, 안전 관련 옵션도 충실하게 장착되어 있다. 사진제공 | 쉐보레

# 볼트 EV, 전기차 대중화 이끌 게임체인저

## 쉐보레 볼트 EV 시승기

1회 충전 주행거리 383km 훨씬 웃돌아 204마력·제로백 7초...스포츠주행 가능 앱 통한 커넥티비티 등 첨단기술 집약



전기차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 쉐보레에서 출시한 전기차 '볼트 EV'를 시승하고 난 뒤 전기차의 일상적인 활용도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1회 충전으로 383km를 달 수 있으며, 1년 유류비는 20만원이면 충분하고, 3.0 기술인 승용차를 능가하는 제로백 7초의 성능을 지닌 전기차라면 구입을 주저할 이유가 있을까. 볼트 EV는 이미 올해 판매분이 하루 만에 완판되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상품성을 증명했다. 전기차를 일상으로 끌고 들어온 볼트 EV를 시승해봤다.

### ●1회 충전으로 383km 압도적인 주행 거리

쉐보레가 볼트 EV를 출시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다. 자동차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볼만한, 국내 자동차 시장의 확실한 게임체인저다.

일단은 압도적인 주행 거리가 인상적이다. 볼트 EV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383km다. 이는 이른바 공인 연비다. 하지만 실 주행거리는 383km를 훨씬 웃돈다. 이유가 있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 즉 공인 연비를 측정할 때 회생제동에너지를 통해

늘어나는 주행 거리를 측정하지 않는다.

볼트EV는 스티어링 휠 후면의 패들 스위치를 통해 운전자가 능동적으로 회생 에너지 생성을 제어할 수 있는 리젠 온 디맨드 시스템(Regen on Demand)을 비롯해 전자식 기어 시프트를 'L' 모드로 변경해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가속은 물론 완전 정차까지 제어하는 신개념 회생제동 시스템 원 페달 드라이빙(One-pedal Driving)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생기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준다. 배터리를 달리면서 충전해 주행 가능 거리를 늘려주는 기술이다. 공인 연비 측정시에는 이와 같은 회생제동에너지를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때문에 운전자들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 회생제동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행을 하면 주행 가능 거리는 더 늘어나게 된다.

볼트 EV의 도심 주행 공인 연비는 411km다. 장거리 주행시 연비 운전은 한다면 450km 이상은 쉽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전기차의 특성이 갖는 상상 이상의 퍼포먼스

전기차는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에 비해 힘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한다면 기우다.

쉐보레 볼트EV는 전기차 전용 알루미늄 합금 고강성 차체에 고효율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 204마력의 최고출력과 36.7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204마력에 36.7kg.m이라는 숫자보다 실제

로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이유는 전기차의 특성이 있다. 최대토크가 초기 출발시부터 곧바로 발휘되기 때문에 엄청난 가속감을 느낄 수 있다.

전기차라 엔진의 소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치 제트기가 이륙할 때와 같은 느낌의 엄청난 속도감이 느껴진다.

심지어 볼트 EV에는 더욱 다이내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Sport) 모드까지 장착되어 있다. 이 모드를 활성화하면 페달 반응은 더 민감해지며, 폭발적인 가속감을 즐길 수 있다.

제로백은 기대 이상이다. 전자정밀 기어 시프트와 전기차에 최적화된 전자식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이 어우러져 있어 스포츠카 수준의 정밀한 조향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시속 100km까지는 7초 이내에 주파한다.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샀는데, 스포츠카 한 대가 따라오는 느낌이다.

### ●미래지향적인 실내외 인테리어·활용도 만점 실내공간

이렇게 멀리, 잘 달리는데 스타일도 멋지다. 한국지엠 디자인센터의 주도로 완성된 디자인은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해치백 디자인을 통해 스타일과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전면부는 3차원 디자인에 양감 표현 패턴을 삽입한 판타스틱 듀얼포트 그릴과 LED 주간주행등, HID 헤드램프를 적용해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살렸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새롭게 재해석된 듀얼 콕핏 인테리어와 다이아몬드 입자형 IP 및 도어트림, 엠비언트 라이팅 시스템을 통해 전기차 특유의 스

마트한 느낌을 강조했다.

실내 공간도 넓다. 수평으로 설계한 배터리팩과 2600mm의 휠베이스,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높은 전고 덕분에 1·2열 어디서도 쾌적하다. 운전석에 180cm의 남성이 앉아 운전을 하고 바로 뒤 2열에 역시 180cm의 남성이 앉아도 무릎 공간이 충분할 정도다. 첨단 압축형 섀시 덕분이다. 2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 성인 3명이 앉아도 불편함이 없고, 6:4 폴딩시트와 트렁크 트레이를 적용해 대용량 화물도 쉽게 적재할 수 있다.

### ●첨단 인포테인먼트 및 안전 시스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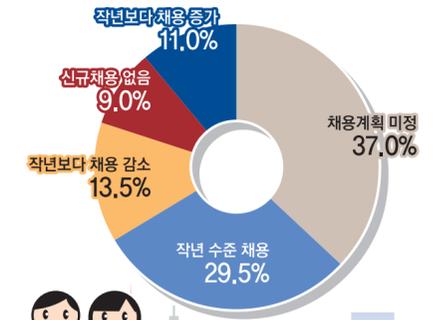
볼트 EV는 10.2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쉐보레 마이링크(MyLink)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애플 카플레이를 포함한 첨단 커넥티비티 시스템과 전기 에너지 모니터링 등 진일보한 IT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각종 안전 사양도 충실하다. 차체의 81.5%에 초고장력, 고장력 강판을 적용했다. 여기에 차선미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 시스템, 저속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등 폭넓은 예방 안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타이어도 펑크시 자동으로 메워주는 미쉐린 셸프-실립 타이어를 채택했다. 쉐보레 볼트 EV의 가격은 보조금 혜택 전 4779만원, 세이프티 패키지 포함 4884만원이다.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2000만원대에 구입 가능하다. 올해는 이미 완판되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데이터로 보는 경제 2017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한국경제연구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17년 상반기 500대 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의 22.5%가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 작년보다 규모를 줄이거나 한 명도 뽑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 모델들이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 오픈 기념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카드

## “롯데월드타워 갈때 롯데카드로” 서울스카이 10% 할인

롯데카드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 오픈 기념 이벤트를 연다. 우선 5월9일까지 롯데카드로 서울스카이 입장권 결제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 현장 매표소에서 구입 시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롯데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6일까지 롯데월드몰에서 롯데카드 결제금액에 따라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당일 10만원 이상 결제 시 스워드 스와 토이 1세트, 15만원 이상 결제 시 기프트카드 1만원권, 30만원 이상 결제 시 기프트카드 3만원권, 50만원 이상 결제 시 서울스카이 입장권 2매를 제공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허재영(왼쪽) 삼성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장과 이정우 서울대학교 CML 연구실장이 협약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삼성카드

## 삼성카드-서울대 '인공지능 협력' AI 활용한 개인화 마케팅 모델 개발

삼성카드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맞손을 잡았다. '인공지능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한 것.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모델 개발이 주요 골자다. 향후 AI를 활용한 개인화 마케팅 모델 개발 등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그 결과를 상호 활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허재영 삼성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장은 "최근 활발히 연구 중인 인공지능 기법을 카드사의 빅데이터와 결합하면 고객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 회사는 5월31일까지 SC은행과 포괄적 업무 제휴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연다.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 정답을 맞히고, 이벤트에 응모한 후 삼성카드로 일시불과 할부를 합산해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1111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1등 1명에게 삼성 QLED TV, 2등 10명에게 삼성 갤럭시S8 등이 제공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BC·신한·롯데·NH농협카드...실천형 CEO가 왔다

## 카드사 새 CEO 4인 '바쁘다 바빠!'

채종진·이인기 사장, 플랫폼 활용 적극 김창권·임영진 사장, 사회공헌에 솔선



'바쁘다 바빠!' BC·신한·롯데·NH농협카드가 올해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를 맞이한 가운데, 새 CEO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 채널과의 협업, 사회공헌활동 등 적극적 행보가 특징이다.

우선 채종진 BC카드 신입 대표이사 사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새 사장은 다양한 플랫폼 활용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BC카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경영방침을 내놨다. 그는 "국내에서는 편리한 결제 환경의 구축과 더불어 차별화된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로열티를 강화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중국 등 해외 사업을 추진하며 인정받았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핀테크 분야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 범위를 인접영역으로 확장하는 '범위의 경제'



카드사 새 CEO들이 다 채널과의 협업·사회공헌활동 등 적극적 행보를 눈길을 끈다. 취임사를 하고 있는 채종진(왼쪽) BC카드 신입 대표이사 사장 취임식 후 사회공헌기금과 현물증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김창권(오른쪽 사진 왼쪽)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진제공 | BC카드·롯데카드

와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또 모기업인 KT그룹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한계 돌파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인기 NH농협카드 사장 역시 다양한 플랫폼 활용을 실천 중이다. 최근 인터파크와 공동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향후 양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니즈에 부합한 프로모션 확대, 양사의

회원 유지 채널 확대, 차별화된 제휴카드 출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향후 우수 농·축산물을 연계한 농심 프로모션을 통해 농가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새 CEO들은 사회공헌활동에도 열심이다.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이 대표적으로, 최근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기금과 현물증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부산 나눔소아암센터에 직접 전달했다. 임

직원 사회공헌기금 2014년5022원은 매월 급여의 끝전을 모아 기부한 '급여우수리 나눔 캠페인'과 회사가 임직원이 모금한 금액만큼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은 현물 캠페인을 통해 모은 현물증 279매와 함께 기부돼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올해로 3년째 소아암 환자 치료를 위해 후원하고 있는데, 누적 후원금이 4121만 1808원에 이르렀다"며 "무엇보다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을 찾고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속 실천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도 예외가 아니다. 임 사장을 단장으로 '아름임 임직원 봉사단'을 조직해 직원과 가족이 지역 복지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임 사장을 비롯한 전 임·부사장이 매월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렇듯 카드사 CEO들이 실천형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사회적 책임 실천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고객 유지 및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임 사장은 "신한카드는 임직원 모두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상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금융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